

생활 주변, 나아가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환경의 비중을 감지하고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작은모임을 꾸려 이를 실천하는 단체가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환경관리인들이 뜻을 함께 하여「우리의 국토와 국민의 정서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자연상태로 보전·회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81년 청정회(회장:설동화)를 구성, 13년째 이모임을 꾸려오고 있다. 식품, 자동차, 섬유, 전자 등에 재직하는 환경관리인 18명으로 구성된 동회는 그간 지역의 환경보전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편집부

대표적인 활동내역은 첫째, 환경보전협회와 방지사설업체에 종사하는 회원들 주최로 활성오니처리기술, 도금폐수처리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등 방지사설 가동기술 개발 및 교류에 앞장섰다.

둘째, 년 2회 관광지 및 유원지에서 부부동반으로 자연보호팻말 설치, 새집달아주기, 행락객에게 리본달아주기 등의 자연환경보전 운동을 실시하였다.

셋째, 회원가정의 순방모임을 갖는 등 회원간의 유대교류를 통해 지역협회의 활성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주목할만한 점은 청정회가 광주·전남협회의 모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광주·전남협회의 박재형초대회장, 2대 허관희회장, 3대 김왕근회장을 위시하여 동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가 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회는 최근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기술보급 및 교류중심의 운영방침을 수정하여 금년 부터는 인간교류와 사회활동 즉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중점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범시민대상의 자연보호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광주·전남협회를 통한 환경관리인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권익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란다. 청정한 미래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동회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청정환경, 우리손으로!

